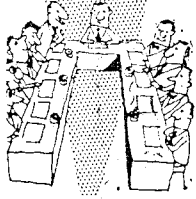


經營



# 回復期 빨라지는 國際經濟

## 多様な 開發段階에 瀕친 試鍊

73年 10月 4次中東戰이 石油波動을 몰고來  
後 世界的인 經濟受難을 當해온 것이 거의 全  
世界(産油國등을 除外한) 모든 나라의 惡境  
이다.

그러므로 이는 避할려야 避할 수 없는 共通  
된 試鍊에 捲림이 없지만 韓國과 같이 國內에  
一滴의 石油生産마저 없고 開發途上國中의 少  
發隊列에서 거창하고 多様な 經濟開發 事業을  
高速推進하고 있는 나라들이 받는 打擊은 可  
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景氣回  
復의 時期가 우리와의 貿易關係가 가장 比重  
큰 美國·日本등 兩國보다 約 1年 늦어질 것  
이기 때문에 그만큼 經濟難局의 앞날이 더 長  
이 남아있음을 念頭에 두는 忍耐力이 必要하  
다. 하기는 不景氣의 打擊이 瀕쳐온 初期에  
美·日兩國보다 半年이상 늦었던 것을 想起할  
수가 있다. 具體的으로 말해서 韓國經濟의 7  
年은 美國과 日本등이 겪은 1年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덜한 해이었다.

그밖에도 油價쇼크 以前에 서둘러서 實戰에  
움겨졌어야만 했던 많은 問題들도 재고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나라들(主로 先進國)  
과는 달리 二重의 經濟難局 克服作業을 遂行  
하는 創意와 努力 그리고 不退轉의 決意가 尤  
重해진 것이다.

企業分野만 하더라도 너무도 甚한 懸案들을  
안고있다. 여기에 그 몇가지만 추려 본다면  
① 大企業그룹, 財務構造를 改善키 위하여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傍系企業體의 廢·合  
併 또는 讓渡 그리고 非業務用·不動産의 處  
分을 하여야 하게 마련이며 ② 中小企業의  
系列化·專門化는 勿論 可能限의 輸出産業  
을 指向前進하고 ③ 모든 最格業體의 企業

閱

王

仁

△京畿大 교수▽

開 및 其他 열거하기에 힘겨울만 하다.

### 美·日·西獨·佛·伊의 景氣회복 前夜

韓國經濟가 오늘날 世界經濟의 3大難題인 인플레이, 不況, 失業增大의 可能性에서 解脫할 수 있을 時期를 想定해 보는 方法으로 먼저 先進國들 經濟動向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理由는 韓國經濟가 開放經濟 體制일 뿐만 아니라 貿易依存도가 75%이란 高率인 때문이다.

先進 몇個國의 經濟動向을 概觀한다면 인플레이는 分明히 鈍化하였고 不況은 바닥에서 벗어나서 景氣회복의 兆朕이 뚜렷해졌으나 失業率은 아직 높아지는 過程이다. 勿論 英國의 인플레이가 先進國중에서는 尙高하고 西獨의 例와 같이 失業者가 벌써 줄어들기 시작한 나라가 없지도 않다.

즉 美國의 경우를 본다면 今年 1,4分期에 GNP 年率 마이너스 10.4%, 失業率 8.7%(3月基準), 企業利潤 22.3%減少등의 不透明한 局面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인플레이의 鈍化(7.2%減一年率), 耐久財의 受注增大등 일단 愁眉를 펴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經濟指標가 注目된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는 生産·販賣·在庫의 不均衡이 調整되고 金利의 계속의 下落이 奏效하여 銀行借入金의 償還圓滑化로 金融市場의 流通改善이 이룩되었으며 인플레이는 經濟自體內抑制라는 正常코스틀 건게 되었다. 또 失業者가 줄지는 않았으나 新社員採用의 季節性을 反映하여 全體雇傭人員數는 늘어났다.

한편 美國의 景氣先行指標는 더욱 鼓鑼的이다. 美國의 景氣指標가 11個月동안이나 계속 下落해온 끝에 3월에는 1%上昇하였던 것인데 4월에는 4.2%나 上昇하였다. 美國商務省의

이와같은 發表가 有은後 앞으로의 景氣회복을 樂觀하는 相當數의 專門家들은 4월을 景氣後退의 바닥으로 보고 5月以後에 漸次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慎重派專門家들도 3,4分期以後이나 景氣가 回復할 것이나 景氣後退가 끝나기는 하였다는데 意見을 같이하게 되었다.

다음 日本經濟도 通產省이 公式發表를 할 수 있을만큼 好轉徵兆가 確實해졌다. 즉 生産과 消費支出이 모두 늘어나고 在庫는 下落되었으며 4월에만도 13億 3萬弗의 貿易黑字를 내었는데 1~4月的 黑字는 26億弗이다.

10月의 貿易黑字는 前年同期의 8億 5千萬弗의 3倍를 약간 넘을정도이다.

그리고 日銀調査에 依하면 3월에는 6個月만에 鑛工業生産이 늘어났으며 財政, 住宅, 消費關聯의 需要가 회복되고 在庫調整으로 4月以後에도 産業生産이 增加추세를 보여 景氣가 全般的인 회복段階에 接近할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4月的 消費者物價가 2.2%上昇(都賣物價는 0.2%)하여 昨年 10月的 2.3% 昂騰記錄에 비급하고 있는 것은 같은달 美國에 都賣物價가 6個月만에 反騰한 事實과 더불어 注目됨에 足하다. 景氣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先進諸國이 景氣浮揚政策에 積極적인 때문이다. 數個月前부터 77년에 急激한 인플레이가 再現할 것이란 豫測이 擡頭되어 날이갈수록 그것이 各國各層의 見解로 번져지고 確率높을 豫測으로 굳어져 가는 此際이니만치 美·日兩國의 이와같은 物價動向은 벌써 景氣浮揚策에 適切한 限界設定이 必要함을 警告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우기 6월에 發表實施할 것으로 보여지는 第2次景氣浮揚策이 日本의 인플레이에 어떻게 反映될른지는 相當히 큰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그 景氣浮揚策이 追加財政支出과 金利引

下에 依한 民間投資의 促進등으로 通貨膨脹을 隨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西獨實情으로는 先進諸國에서 볼 수 없는 事實인 失業減少도 들 수 있다. 지난 2月만하더라도 16年間の 最高記錄으로 118萬名의 失業者(5.2%)를 내었던 것인데 4月에는 104萬名으로 줄어들었다. 美·日兩國 그리고 英國을 除外한 EC諸國이 모두 인플레이션, 生産 및 出荷増可, 在庫減少傾向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失業者만은 늘어나는 過渡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唯獨 西獨만은 實業 감소에 들어선 것이다.

西獨經濟가 轉換局面에 들어섰다는 것은 經濟省이 公式肯定하고 있다. 年利 7.5%의 投資支援은 6月까지 계속되게 마련이므로 西獨經濟成長(今年)은 최저 2%만은 可期할 수 있을 것이다. 西獨의 今年經濟成長豫測에는 滿差가 큰데 特色이 있다. 즉 OECD(當初)는 4.25%, EC執行部는 2.5%, 西獨政府自體는 2%로 각각 달리보고 있으나 최근의 經濟動向으로는 2%를 下廻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는 假想할 수 없다.

그리고 佛蘭西는 인플레이션이 昨年에 15.2%에 到達하였으나 今年들어서는 지금까지 年率 10.8%의 實績이다. 3月에 8百 6萬프랑이었던 貿易黑字가 4月에는 16億 2百 7萬프랑에 상승하였고 外換保有高도 9百 85億프랑을 上廻하였다. 그리고 약간 樂觀의인 見解일 것 같기는 하나 佛政府가 OECD에 報告한 內容으로는 GNP成長豫想(今年度)이 2.2%로 올려잡혀져 있다. 한편 伊太利도 1,4分期의 인플레이션이 今年 13%(昨年同期는 年率 25%)로 鈍化하였다. 그리고 伊政府가 償還期到來前의 外債 6億 5千萬弗을 償還한 것은 英國과 더불어 2大 苦戰國으로 指摘되어온 伊太利가 早期景氣 회복國으로 修正評價 當할만한 일이다. 그

러나 西歐 先進國中에서 英國만은 困境의 계속이다. 例를 들자면 인플레이션이 4月에 史上最惡의 記錄인 年率 21%이었고 前途 또한 非樂觀的이다.

### 輸出 好轉展望과 內需創出

以上 美·日 및 西歐先進諸國의 景氣회복 朕兆이 徐徐히나마 韓國經濟에 反映되고 있으며 특히 兩大輸出市場인 美·日兩國의 景氣好轉徵兆는 우리의 期待를 모으게 하고 있다.

우리의 4月末 現在 輸出實績은 13億 1千 7百 30萬弗이므로 前年同期보다 오히려 3%가 줄었고 今年 輸出目標의 22%에 不過한 不振 實績이다. 그러나 4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信用狀來到額이 비로소 輸出實績을 超過하게 되었고 5月の 輸出信用狀 來到額은 5億弗線을 記錄할 것이라 한다. 地域적으로는 前年同期(4月)에 比해 對日 20%, 對美 10%減少한 失望感을 주었지만 5月信用狀 內容에는 4月の 地域別 構成比가 어떻게 是正되었는지 궁금한 點이다. 아ולם 輸出의 進行指標인 信用狀 來到額이 5월에 激增된 것은 先進國들의 景氣後退가 끝난것 및 中東地域과의 交易增大를 說明해주는 것으로서 明日을 期待케하는 傾向의 하나이다.

둘째 輸出增進과 併行하여 內需를 높이는 側面에도 새로운 努力이 아쉬워진다. 나라에 따라 與件이 같지 않으므로 內需振作의 目的을 같이하면서도 그 段階方法을 달리해야 할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다만 景氣對策의 要諦가 最終消費者의 購買力을 強化하는데 있음은 最近의 美國이 租稅減免規制法(法案 上下兩院通過는 3月 25日)을 마련, 228億弗의 稅負擔을 輕減시킨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75會計年度(74年 7月 1日~75年 6月 31日)의

個人所得稅 81億弗을 遠拂하고 企業施設投資 控除率 10%를 實施하며 75會計年度中 新規購 入住宅에 比해서는 購入價格의 5% 또는 최고 2,000弗의 課稅控除를 하게 된 것 및 其他에 걸치 그 國民들의 租稅負擔을 덜어줌으로서 그만큼 購買力을 向上시키고 있다. 한편 企業 들도 投資意欲을 더욱 많이 갖게끔 새로운 投資에 대한 課稅控除率을 新設한 것이다.

觀點如何에 따라서 다른 結論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租稅減免制度 運用實績을 볼 땐 어느편이나 하면 企業에 置重된 感이 없지가 않다. 그는 우선 먼저 企業을 育成해야겠다는 政策熱意에 緣由하였다 하겠다.

하기는 75年 1月 1日부터 實施한 甲勤稅를 비롯한 勤勞所得에 대한 稅負擔率이 낮아졌다. 특히 基礎控除·扶養家族控除등등으로 말미암아 低所得層의 「所得額에 겨누는 稅負擔額」은 74년까지의 그것에 비해 顯著하게 輕減되었다.

### 選別的 施設投資

세계 景氣浮揚에 置重하는 財政·金融 政策 下에서 上半期에 財政撒超·下半期는 相對的인 金融緩和를 하도록 方向設定이 되어있고 특히 1.4分期의 公共事業 早期執行은 文字 그 대로 積極的이었다. 그러나 下半期에도 金融資金의 硬化狀態가 크게 緩和하리라는 前提下에서의 企業의 經營計劃을 세운다면 이는 誤算일상 竝다.

1~4月的 國內與信 增加額은 4千 9百 39億 원으로서 前年末에 比해 16.6%의 增加이므로 今年度의 國內與信增加限度로 策定된 31.2%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下半期의 金融緩和를 지나치게 期待해서는 안될 일이다. 勿論 IMF

와 協議를 通해서 國內與信增加限度를 再調整 하는 길은 過去에 擇한 例가 많고 今年에도 있음직한 일이다 그 程度는 前例가 豫測할 수 있게하는 範圍內이다.

그리고 國內與信이 1~4월에 增加된 部門別 內容을 본다면 民門部門에서는 全體增加率의 折半에도 若干未及되는 8%이고 政府部門 및 肥料部門에 置重되어 있다. 특히 肥料部門에 는 425%가 늘어나 있어 1~4月동안 民門部門의 資金硬塞에 想到케 하는바 있다. 다만 1~4월에 通貨量이 도리어 4.5%나 減少된 것은 關心事이다. 거기에는 인플레이 抑制한 큰 要因과 市中資金에 대한 壓力作用이란 2個側面이 모두 內包되어 있기 때문이다.

企業資金難이 甚하였던 實情은 私債動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3月的 私債去來에 대한 4月分の 丙配稅額 5억 3천 6百萬원(私債利子月 2.5%, 丙配稅率 25%)은 去年同期對比 66.2%增이므로 3月的 私債流通額이 1천 3백 80億원으로 算出된다.

이와 같이 私債去來量이 늘고 利子率이 上昇된 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金融緊縮下에서 銀行貸出의 抑制強度가 높았기 때문이다.

結論하자면 企業의 下半期 資金計劃은 金融緊縮이 實質的으로 풀리기 어렵다는 展望을 根據로 해서 無理없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景氣回復에 對備하는 施設投資 특히 輸出產業用 施設投資에는 積極性이 所望스럽다. 景氣循環에 對處하는 施設投資適期로는 이미 메늦은 感조차 없지가 않다.

內需施設投資보다 輸出產業의 施設投資에는 政府支援이 各별한 것은 輸出與件의 好轉이 內需의 그것보다 앞서고 있다는 點에서도 一致된다. 先進國과 事情이 약간 다른點은 우리의 內需增大의 速度가 大體(輸出用 國產原資材등을 除外)로 緩慢할 그것이다. 大衆購買力,

즉 勤勞層의 所得增大의 速度가 物價上昇의 그것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時期까지도 그러하지 않을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內需動向의 豫測이 勘案되지 않는 內需産業의 施設擴張은 無視하였다는 스스로의 後日評價를 되짚게 될 것이 十常八九이다. 그리고 美國·日本등처럼 거의 徹底狀態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國民間에도 節約에 조금씩 익혀져가기 시작하였다. 비록 透徹한 自覺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所得과 支出의 隔差를 「카바」하기 위해서 또는 그같은 隔差의 事前防止手段으로서의 節約行爲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節約意識을 받아들이는 企業姿勢가 重要해진 것만은 事實이다. 消費大衆이 要求하는 品目, 品質, 價格의 製品生産이 促求된다. 先進諸國으로부터 消費風潮의 情報를 迅速히 吸收, 消化하는데 過去 어느때보다도 힘써야 할 企業의 立場이며 環境이다.

### 번창 課題인 企業公開

네제 企業公開은 今年度 韓國企業界의 번창 課題의 하나이다. 公開하게 될 企業은 勿論, 그 對象으로 되어있지 않는 企業들도 各별한 神經을 쓰게 마련인 까닭이며 그는 많은 內資가 企業公開分野에 몰일 事實에 緣由한다.

昨年 5월부터 지금까지 1年동안에 株式公募社債發行, 有償增資등에 依해서 調達된 內資가 1千 1百 62億원인데 過去 1年보다 앞으로는 더욱 企業公開에 積極인 關係當局일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즉 拙速主義에서 오는 副作用을 막기 위해서 時間이 걸리더라도 公開方針을 서서히 밀고나가겠다는 當局의 言明이기는 하지만 公開與件이 갖추어진 系列企業은 公開遷延을 할 수가 없는 또하나의 制度的 措置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主去來金融機

關에 系列企業別專擔審査制를 實施하고 公開與件이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故意로 公開作業을 迅延시키는 경우에는 企業公開促進法등의 發動 및 金融支援中斷등 制裁措置를 한다고 밝혀져 있다.

75~77年의 企業公開 實數가 어떻게 結果될 것인지는 豫測하기 어렵다. 다만 企業體들이 提出한 公開계획으로는 75年 19個, 76年 24個, 77年 47個業體등 合計 90個로 되어있는데 政府는 75年 51個(既公開包含), 76年 35個, 77年 44個의 合計 130業體가 公開企業化 되도록 誘導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不渡어음, 要求拂預金の 回轉率등

다섯째 不渡어음, 要求拂預金の 回轉率上 積金の 解約增加 傾向등도 勘案하여 企業의 資金計劃이 健實化되어야 할것을 거듭 強調해 두고싶은 心情이다.

4月中 서울의 어음不渡가 21億원이었으므로 3月の 16億원, 2月の 14億원등보다 계속 늘어났으며 要求拂預金の 回轉率은 2月の 8.6회가 3月에는 9.6회로 빨라졌다. 積金解約이 增加된 것은 一定한 積金線에 이르면 自動的으로 貸出받을 수 있었던 過去의 措置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어음交換額이 늘어나면 不渡額도 많아지는 것이 일단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2, 3月の 交換額을 比較해 보면 그렇게도 되어 있지 않다. 또 要求拂預金の 回轉率이 9.6회(4月)인 것은 現實情으로 보아서 바람직한 線을 약간 上廻하고 있다. 그리고 積金과 貸出의 링크가 그 運用面에 있어서 缺陷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是正하고 링크制 自體는 復活시키는 것이 積金吸收의 效率化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